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다영, 손한울, 임윤희, 문채원, 이해윤, 오유경, 김민채, 김주이*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the college life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asses

Dayoung Jeong, Hanul Son, Yunhui Lim, Chaewon Moon, Haeyun Lee,
Youkyoung Oh, Minchae Kim, Jui Kim*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경기도 소재 A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수집된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기술통계, t-test, ANOVA 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총 232명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r=-.15$, $p=.020$) 및 대학생활적응($r=-.67$, $p<.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r=.19$, $p=.002$)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소 중 장래문제($t=-4.33$, $p<.001$), 가치관문제($t=-2.57$, $p=.011$), 학업문제($t=-3.63$, $p<.001$)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학생활적응 점수 총변화량의 52.5%를 설명하였다. 장래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학생, 학업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은 소통이 감소한 비대면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닌 조직 차원의 관심과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and stress-coping methods on student adaptation. The subjects were 232 nursing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non-face-to-face classes. The research tools applied were a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stress coping method scale, and a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revealed that college life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coping with stress ($r=-.15$, $p=.020$)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r=-.67$, $p<.001$). However, stress-coping methods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r=.19$, $p=.002$)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e variables imparting a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are future problems ($t=-4.33$, $p<.001$), value problems ($t=-2.57$, $p=.011$), and academic problems ($t=-3.63$, $p<.001$). These variables explained 52.5% of the total change in the score for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We determined that students who are worried about future problems, have entered the school without establishing a strong personal value, and are struggling with academic problems will require more attention and organizational intervention than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Keywords : Adaptation, Stress, Students, Nursing, Value of Life

*Corresponding Author : Jui Kim(Ansan University)

email: juikim@ansan.ac.kr

Received September 27,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October 28,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대학생들은 수업, 생활, 대인관계 영역에서 전과 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1].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동성 및 이성 친구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관계,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 등으로 다양한 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2] 변화된 비대면 상황은 수업, 생활, 대인관계 영역의 변화로 대학생활에 새로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였다.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대학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학업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 되었는데[4], 비대면 상황을 경험하며 집중력 저하 및 새로운 수업 방식 적응의 어려움[5], 학습효율 저하[6] 등 학업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학 시설 이용 제한, 교수 및 학우들 간의 소통 감소, 기대했던 대학생활에 대한 박탈감 등 새로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5].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행동을 말하며 이는 세부적으로 적극적 대처방법인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로 구분된다[7]. Lazarus와 Folkman의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한다고 보았다[7].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유의미한 요인으로[8] 대학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처방식을 확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대학생활적응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학과 대인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9].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적, 학업적,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잘 적응해야 대학생활부적응을 피할 수 있다[10]. 대학생활부적응은 학업수행능력 감소, 고립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학과 생활 유지 및 직업 정체성 확립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11].

COVID-19 이후 변화된 환경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졌다[12]. 간호대학생의 학업 중단은 인적 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개인적인 문제에서 나아가 대학 또는 사회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13]. 이에 대학에 진학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은 단지 개인 차원에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14],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8], 비대면 상황에서 세 변수의 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진행한 연구들의 경우도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세부요인까지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확인하고 이것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A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자,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 진행하였다.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전체 설문 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베이 상 자료 수집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양측검정에서 중간정도 효과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20개를 투입하여 분석한 대상자수는 총 222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 서베이 특성상 미응답 설문은 발생하지 않으나, 역코딩 설문응답에도 한 번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설문지로 인한 탈락률 약 5 %를 고려해 총 232명의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하여 23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확인 결과 불성실한 응답은 발생하지 않아 수집된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온라인 서베이 전 A 대학 간호대학생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모집공고를 진행하였다. 이를 읽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경우만 온라인 서베이를 설문을 진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대학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Jeon 등[2]이 발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 RLSS-CS)'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소로 동성친구, 이성친구, 교수와의 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과 당면과제 스트레스 요소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50문항으로

Likert형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도구의 점수 산정 방법은 전체 항목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 였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7]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를 Hwang[15]이 대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해당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에 해당하는 정서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Likert형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도구의 점수산정 방법은 전체 항목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Hwang[1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9]이 개발하고 Lee[16]가 번안하고 수정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Likert형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도구의 점수산정 방법은 전체 항목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Lee[16]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에 대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t-test 및 ANOVA 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A대학의 연구심의위원회(IRB No. 2022-06-003)의 심의를 거쳐 2022년 6월 11일 승인받았다. 연구를 위한 설문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도중 언제든지 중단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나이, 학년,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학과 선택이유, 타 대학 재학 경험(타 대학 중퇴 혹은 졸업 후 재입학)으로 나누어 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3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Gender	Female	192(82.8)
	Male	40(17.2)
Age		22.20±4.83
	≤20	96(41.4)
	21~23	81(34.9)
	24~25	28(12.1)
	25<	27(11.6)
Grade	1st	82(35.3)
	2nd	67(28.9)
	3rd	51(22.0)
	4th	32(13.8)
Number of non-face-to-face semesters	≤2	89(38.4)
	3~4	81(34.9)
	4<	62(26.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83(35.8)
	No	149(64.2)
Reasons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Aptitude	83(35.8)
	Employment guaranty	22(9.5)
	Recommendation of family	20(8.6)
	Other reasons	107(46.1)
Other university experience	Yes	72(31.0)
	No	160(69.0)

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92명(82.8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평균 22.20±4.83세로 18세에서 53세까지 다양하였다. 1학년이 82명(35.3 %)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32명(13.8 %)으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가 경험한 비대면 학기의 수는 2번 이하가 89명(38.4 %)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가 149명(64.2 %)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 83명(35.8 %)보다 많았다. 간호학과를 진학한 동기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83명(35.8 %), ‘취업이 잘 돼서’ 22명(9.5 %), ‘가족의 권유’ 20명(8.6 %), ‘기타’ 107명(46.1 %)이었다. 다른 대학을 다녔던 경험은 ‘아니오’가 160명(69 %)로 ‘예’ 72명(31 %)보다 많았다.

3.2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평균 2.15±0.51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부영역별 평균은 ‘동성친구’ 1.46±0.61점, ‘이성친구’ 1.54±0.59점, ‘교수관계’ 1.92±0.75점, ‘가족관계’ 1.58±0.57점, ‘경제문제’ 2.28±1.02점, ‘장래문제’ 2.55±0.79점, ‘가치관문제’ 2.26±0.89점, ‘학업문제’ 3.20±0.66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균 3.33±0.42점으로 나타났고 각 하부영역별 평균은 ‘문제중심적 대처’ 3.33±0.63점,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3.38±0.55점, ‘정서적 대처’ 2.91±0.60점, ‘소망적 사고 대처’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Life Stress, Stress Coping Method and Student Adaptation (N=232)

Variables	M±SD
College life stress	2.15±0.51
Relationship with same-sex friend	1.46±0.61
Relationship with opposite-sex friend	1.54±0.59
Student-faculty relationship	1.92±0.75
Family relationship	1.58±0.57
Economic problem	2.28±1.02
Future problem	2.55±0.79
Value problem	2.26±0.89
Academic problem	3.20±0.66
Stress coping method	3.33±0.42
Problem-focused coping	3.33±0.63
Seeking social support	3.38±0.55
Emotional-focused coping	2.91±0.60
Wishful thought	3.67±0.62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3.12±0.49

3.67±0.62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12±0.49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대면 학기 경험은 비대면 수업을 2학기 이하로 경험한 대상자(2.04±0.45)보다 4학기 이상 경험한 대상자(2.26±0.51)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3.69, p=.026).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을 경험한 대상자(2.24±0.52)가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2.10±0.49)에 비해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1.98, p=.049). 간호학과 진학 동기는 기타 이유로 진학한 대상자(2.25±0.50)가 적성에 맞아서 진학한 대상자(2.01±0.52)보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3.67, p=.0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

는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과가 적성에 맞아서 진학한 대상자(3.42±0.45)가 기타 이유로 진학한 대상자(3.28±0.40)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정도가 높았다(F=3.57, p=.01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성별, 학년,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여성(3.09±0.47)이 남성(3.26±0.58)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t=-2.01, p=.045). 학년은 1학년(3.22±0.47)이 4학년(2.90±0.49)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3.27, p=.022). 비대면 학기 경험은 비대면 수업을 2학기 이하로 경험한 대상자(3.23±0.48)가 4학기 이상 경험한 대상자(3.00±0.41)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4.47, p=.012).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을 경험한 대상자(3.02±0.48)가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3.18±0.49)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t=2.36, p=.019). 간호학과 진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 진학한 대상자(3.28±0.51)가 기타 이유로 진학한 대상자(3.05±0.47)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4.76, p=.003).

Table 3. Difference of Life Stress, Stress Coping and Student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Life stress		Stress coping metho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2.18±0.49	1.87(.062)	3.30±0.39	-1.72(.085)	3.09±0.47	-2.01(.045)
	Male	2.02±0.54		3.43±0.53		3.26±0.58	
Age	≤20	2.10±0.45	1.15(.327)	3.37±0.42	2.35(.073)	3.17±0.48	1.18(.317)
	21~23	2.19±0.58		3.23±0.45		3.06±0.52	
	24~25	2.11±0.49		3.44±0.39		3.21±0.49	
	25<	2.28±0.46		3.32±0.33		3.04±0.44	
Grade	1st ^a	2.07±0.44	2.33(.075)	3.35±0.38	2.05(.107)	3.22±0.47	3.27(.022) + a)d
	2nd ^b	2.15±0.55		3.33±0.46		3.13±0.51	
	3rd ^c	2.18±0.49		3.39±0.45		3.09±0.46	
	4th ^d	2.35±0.56		3.16±0.37		2.90±0.49	
Number of non-face-to-face semesters	≤2 ^a	2.04±0.45	3.69(.026) † a<c	3.35±0.43	.77(.463)	3.23±0.48	4.47(.012) † a>c
	3~4 ^b	2.19±0.54		3.34±0.42		3.09±0.54	
	4 ^c	2.26±0.51		3.27±0.42		3.00±0.4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2.24±0.52	-1.98(.049)	3.30±0.43	.69(.488)	3.02±0.48	2.36(.019)
	No	2.10±0.49		3.34±0.42		3.18±0.49	
Reasons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Aptitude ^a	2.01±0.52	3.67(.013) † a<d	3.42±0.45	3.57(.015) † a>b	3.28±0.51	4.76(.003) † a>d
	Employment guaranty ^b	2.24±0.47		3.12±0.40		2.96±0.49	
	Recommendation of family ^c	2.12±0.38		3.40±0.36		3.05±0.38	
	Other reasons ^d	2.25±0.50		3.28±0.40		3.05±0.47	
Other university experience	Yes	2.18±0.48	.62(.535)	3.30±0.33	-.78(.433)	3.12±0.41	-.06(.950)
	No	2.14±0.52		3.34±0.46		3.12±0.52	

† Post-hoc: Scheffé test

3.4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r=-.15, p=.020$), 대학생활적응($r=-.67,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r=.19, p=.002$)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학생활적응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부영역 중 동성친구($r=-.40, p<.001$), 이성친구($r=-.29, p<.001$), 교수관계($r=-.39, p<.001$), 가족관계($r=-.40, p<.001$), 경제문제($r=-.38, p<.001$), 장래문제($r=-.61, p<.001$), 가치관문제($r=-.54, p<.001$), 학업문제($r=-.56, p<.001$)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의 하부영역 중 문제중심적 대처방식($r=.30,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대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성별은 여성이 1, 남성은 0으로, 학년은 1학년은 1, 이 외 학년은 0으로, 대상자가 경험한 비대면 학기의 수는 2번 이하는 1, 3회 이상은 0으로, 임상실습 경험은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간호학과 진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 1, 이외는 0으로 더미 변수로 전환시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는 대학생활적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독립변수인 성

Table 4. Correlations among Life Stress, Stress Coping and Student Adaptation (N=232)

Variables	Life stress									Stress coping metho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r(p)
	X1 r(p)	X2 r(p)	X3 r(p)	X4 r(p)	X5 r(p)	X6 r(p)	X7 r(p)	X8 r(p)	total r(p)	Y1 r(p)	Y2 r(p)	Y3 r(p)	Y4 r(p)	total r(p)	
Life stress	X1	1													
	X2	.47 ($<.001$)	1												
	X3	.46 ($<.001$)	.33 ($<.001$)	1											
	X4	.55 ($<.001$)	.39 ($<.001$)	.43 ($<.001$)	1										
	X5	.39 ($<.001$)	.32 ($<.001$)	.27 ($<.001$)	.39 ($<.001$)	1									
	X6	.34 ($<.001$)	.26 ($<.001$)	.35 ($<.001$)	.39 ($<.001$)	.37 ($<.001$)	1								
	X7	.40 ($<.001$)	.34 ($<.001$)	.49 ($<.001$)	.50 ($<.001$)	.41 ($<.001$)	.54 ($<.001$)	1							
	X8	.29 ($<.001$)	.14 (.024)	.33 ($<.001$)	.27 ($<.001$)	.36 ($<.001$)	.55 ($<.001$)	.44 ($<.001$)	1						
	total	.66 ($<.001$)	.55 ($<.001$)	.65 ($<.001$)	.67 ($<.001$)	.70 ($<.001$)	.74 ($<.001$)	.76 ($<.001$)	.65 ($<.001$)	1					
Stress coping method	Y1	-.16 (.013)	-.11 (.087)	-.17 (.009)	-.23 ($<.001$)	-.14 (.025)	-.23 ($<.001$)	-.19 (.003)	-.24 ($<.001$)	-.27 ($<.001$)	1				
	Y2	-.04 (.552)	-.02 (.727)	-.11 (.095)	-.14 (.032)	-.03 (.589)	-.04 (.545)	.01 (.785)	-.10 (.121)	-.08 (.213)	.45 ($<.001$)	1			
	Y3	-.03 (.558)	-.01 (.875)	.052 (.427)	.10 (.125)	.01 (.778)	-.08 (.202)	.03 (.560)	.01 (.799)	.01 (.870)	.13 (.045)	.27 ($<.001$)	1		
	Y4	.04 (.469)	-.00 (.985)	-.01 (.788)	-.03 (.624)	.11 (.072)	.04 (.486)	.15 (.018)	.03 (.578)	.07 (.246)	.28 ($<.001$)	.63 ($<.001$)	.37 ($<.001$)	1	
	Total	-.11 (.082)	-.07 (.287)	-.11 (.094)	-.15 (.021)	-.05 (.438)	-.15 (.015)	-.04 (.522)	-.15 (.019)	-.15 (.020)	.72 ($<.001$)	.80 ($<.001$)	.56 ($<.001$)	.71 ($<.001$)	1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40 ($<.001$)	-.29 ($<.001$)	-.39 ($<.001$)	-.40 ($<.001$)	-.38 ($<.001$)	-.61 ($<.001$)	-.54 ($<.001$)	-.56 ($<.001$)	-.67 ($<.001$)	.30 ($<.001$)	.12 (.063)	.08 (.214)	-.11 (.070)	.19 (.002)

X1=Relationship with same-sex friend, X2=Relationship with opposite-sex friend, X3=Student-faculty relationship, X4=Family relationship, X5=Economic problem, X6=Future problem, X7=Value problem, X8=Academic problem, Y1=Problem-focused coping, Y2=Seeking social support, Y3=Emotional-focused coping, Y4=Wishful thought

별, 학년,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부영역과 문제중심적 대처 항목을 독립변수로 넣어서 분석하였다. 이 중 성별, 학년,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의 명목변수는 더미 변환 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장래문제($t=-4.37, p<.000$), 가치관문제($t=-2.56, p=.011$), 학업문제($t=-3.64, p<.00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52.5 %의 설명력을 보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tudent Adaptation (N=232)

Variables	β	t	p
(Constant)		20.42	.000
Relationship with same-sex friend	-.08	-1.33	.183
Relationship with opposite-sex friend	-.03	-.61	.538
Student-faculty relationship	-.03	-.51	.606
Family relationship	-.01	-.17	.864
Economic problem	-.06	-1.07	.284
Future problem	-.27	-4.37	.000
Value problem	-.16	-2.56	.011
Academic problem	-.22	-3.64	.000
Problem-focused coping	.09	1.80	.073
Gender	-.04	-.82	.409
Grade	.02	.23	.814
Number of non-face-to-face semesters	.01	.14	.88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03	-.61	.540
Reasons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	.05	1.07	.285
F (p)		17.15(<.001)	
R ²		.525	
Adjusted R ²		.495	

Dummy variables: Gender(Female=1, Male=0), Grade(1st=1, Others=0), Number of non-face-to-face semesters($\leq 2=1, 3\leq 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Yes=1, No=0), Reasons for choosing the Department of Nursing(Aptitude=1, Others=0)

4. 논의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확인하고 이들 변수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점수는 2.15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비대면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를 확인한 Kim[17]의 연구결과인 2.07점보다 조금 높았으며, 대면 상황에서 진행한 Jung[18]의 연구결과 2.24점보다 낮았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는 학업문제 영역이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성 친구 영역이 1.4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비대면 상황의 연구인 Kim[17]의 연구결과, 대면 상황에서 진행한 Song[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 모두 학업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 상 실습과 학업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14].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점수는 3.33점으로 대면 상황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Jang[19]의 연구결과 2.5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는 소망적 사고 대처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대처가 2.91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Jang[1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소망적 사고 대처란 소극적 대처방식 중 하나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며 왜곡하게 되어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아니다[20].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 모두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 소극적 대처방식인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3.12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대면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 Yoo[21]의 연구결과인 3.24점보다 조금 낮았으며,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한 Lee[3]의 연구결과인 2.72점보다는 높았다. 상기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향후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을 모두 겪은 대상자에게 동일 변수를 반복 측정하거나 동일한 도구로 상기 변수를 측정한 다수의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성별, 학년,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익하게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 비대면 상황에서 대학생활적응을 확인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다는 결과[19]와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21]가 공존하여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수, 대상자 수 등을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학년별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1학년이 4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동일한 연구도구로 변수의 값을 대면 상황에서 측정한 Yoo[21]의 연구결과와 비대면 상황에서 측정한 Lee[3]의 연구결과가 모두 4학년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는 6월로, 학과 프로그램 상 1학년 학생들은 학과적응 훈련이 마무리된 시점이며 4학년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하는 시점에 연구가 진행된 것에 반해 기존 연구의 시점은 1학기 시작 직후인 4월 혹은 2학기 시작 직후인 10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1학년 학생들은 학기에 적응하는 시점이고, 4학년 학생들은 취업준비 전이거나 취업이 종료된 시기이기에 이러한 요인이 일부 외생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외생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학년별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대면 학기를 체계 경험하고 임상실습 경험이 적은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종 회귀변수에는 학년,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모두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비대면 학기 경험, 임상실습 경험 자체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단지 고학년과 저학년의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본 연구만으로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는 향후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학기 경험에 따른 차이를 추가 분석하여 같은 학년에서도 비대면 학기 경험이나 임상실습 경험 여부 차이에 따른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진학 동기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간호학과 진학 동기가 적성에 맞아서 진학한 학생이 다른 이유로 진학한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낮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며, 대학생활적응 정도 또한 높았다. 이는 Oh[22]의 연구에서 적성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간호대학생이 다른 동기로 지원한 간호대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과 선택의 이유는 학생마다 다양하기에 명확하게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진로상담, 지도교수와의 면담 등 학과 적응을 위

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아지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높아졌다. 이는 대면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Jung[18]의 연구결과인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Yi와 Kwak[23]의 연구결과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가 클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아졌다. 대면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학업적 정서조절[24], 좋은 인간관계, 학업 스트레스, 교수 신뢰[25], 대인관계 조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23]로 확인되었다. 대면 상황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에 대인관계에 관한 변수들이 포함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음에도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통이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긴 비대면 상황에서는 외부적 요소인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보다 개인의 과제로 주어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본인의 가치나 장래에 대한 비전과 같은 내부적 요소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식보다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궁극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위요소만이 포함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 발생 후 대처를 하는 것보다 대학생활 스트레스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대상자가 대면, 비대면 상황을 모두 경험한 후 각

상황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니기에 이후 대면 상황에서 동일 대상자에게 같은 변수를 반복 연구 후 변화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제한점에도 본 연구의 의의는 장래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개인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입학한 학생, 학업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은 소통이 감소한 비대면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닌 간호학과 및 대학 차원의 관심과 증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확인한 데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COVID-19로 비대면 수업 경험이 불가피했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을 낮추게 되므로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부영역 중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에 직면하는 학생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인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학업문제가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을 모두 겪은 대상자에게 동일 변수들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변수들의 차이가 있을지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H. J. Moon,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tress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1, pp.233-247,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233>
- [2] J. G. Jeon, K. H. Kim, J. S. Lee,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2, pp.316-335, 2000.
- [3] J. E. Lee, "Influences of th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on-face-to-face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pp.2829-2840, 2021.
DOI: <http://doi.org/10.37727/jkdas.2021.23.6.2829>
- [4] Y. S. Song,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8, No.1, pp.71-80,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71>
- [5] M. R. Kim,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aking Contactless Classes During COVID-19",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1, pp.533-548,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1.38>
- [6] K. A. Lee, H. W. S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5, pp.239-254,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5.239>
- [7]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p.445,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pp.55-116.
- [8]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3, pp.267-276, 2011.
- [9]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p.509,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2, 1984, pp.179-189.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10] R. K. Russell, T. A. Petrie,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sessment and counseling*, p.656, *Hand 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1992, pp.485-511.
- [11] M. J. Seo, J.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815-824,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 [12] K. A. Lee, H. W. Son, "A Study on the College Adapt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Students in Post Corona Er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5, pp.239-254,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5.239>
- [13] K. O. Hong, H. W. Ka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their self-efficacy for academic attainment to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 Association of Young Children Studies*, Vol.13, No.1, pp.133-144, 2010.
- [14]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395-403,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395>
- [15] Y. K. Hwang,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mpus Life Satisfaction,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Rural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pp.35-40, 2013.
- [16]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17] J. I. Kim, “Relations between College Lif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at Had Non-Contact Online Co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361-370,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361>
- [18]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7, pp.259-268,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6.14.7.259>
- [19] H. J. Ja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 Academic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7, No.4, pp.969-985, 2020.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4.969>
- [20] H. S. Jeong, “Influence Factors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Dimensions of Empathy, Ego-resilience, Stress-coping Strategi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7, No.4, pp.256-266, 2017.
DOI: <http://doi.org/10.5392/JKCA.2017.17.04.256>
- [21]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3, pp.269-27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 [22] Y. J. Oh,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5, No.7, pp.307-317,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7.307>
- [23] J. E. Yi, H. W. Kwak,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527-537,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1.527>
- [24] G. O. No, M.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4, pp.424-432,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4.424>

- [25] J. H. Park, E. K. Le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Femal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or Trus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7, pp.831-844, 2016.

정 다 영(Dayoung Jeong)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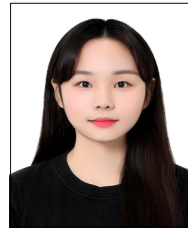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손 한 울(Hanul Son)

[준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임 윤 희(Yunhui Lim)

[준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오 유 경(Youkyoung Oh)

[준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문 채 원(Chaewon Moon)

[준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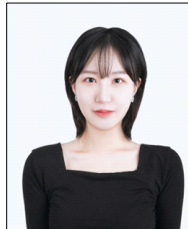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김 민 채(Minchae Kim)

[준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이 해 윤(Haeyun Lee)

[준회원]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관심분야>
간호학

김 주 이(Jui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
학원 임상간호전공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21년 2월 :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 2021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중재연구, 시뮬레이션실습 교육